

전북지역 수능시험 2만561명 응시

재학생 1만7274명 · 졸업생 2,979명 · 검정고시 308명

전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2만561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마감된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2018학년도에 비교해 4명이 증가했고, 재학생 응시자는 115명 증가한 1만7274명, 졸업생은 108명 감

소한 2979명, 검정고시 응시자는 3명 감소한 308명이다. 영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국어영역 2만532명, 수학영역 1만9707명(가형 7917명(40.2%), 나형 1만1790명(59.8%)), 영어영역 2만457명, 한국사(필수) 2만561, 탐구영역 1만,701명 [사회탐구 9912명(50.3%), 과학탐구

9635명(48.2%), 직업탐구 237명(1.2%)], 제2외국어/한문 2,061명(10%)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 대한 지원 비율은 0.67:1, 전국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 대한 지원 비율은 0.47:1로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1월 15일 수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미 8월 16일부터 8월 31일

“학생들의 꿈과 끼 키워주고자”

전북교육청, 개인교육기부단 위촉

전북도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2018년 개인교육기부단 위촉식 및 운영설명회를 가졌다. 개인교육기부단이란 사회의 우수한 역량과 재능을 가진 개인이 부자가 도내 교육기관 및 학교를 찾아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기부활동을 제공하는 교육인력풀을 말한다. 이번 위촉되는 개인교육기부자 25명은 도교육청이 지난 5~6월 각급 기관 및 학교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위촉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기부분야는 사회체육, 특수체육,

대입전형, 응급처치, 마용, 인성교육, 음악, 외국어 등 다양하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인교육기부단 명단을 도내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지속적인 교육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인교육기부단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진로·직업체험 활동 등 교육과정 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7일 오후 5시 드래곤프로젝트 환영식을 갖고 본격 학업에 돌입했다.

전북대, 中 교수 박사학위 프로젝트 ‘시동’

한중 돈독한 유대 형성 대학 브랜드가치 높일 기회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중국 내 대학 교수들의 박사과정 진학 프로그램을 ‘드래곤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내 대학 재직 교수 중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전북대 박사과정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대는 중국 전문가 양성과 친한 과 육성을 위해 중국 대학과의 교류에 주력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번 프로젝트에 모두 24명의 중국 교수

들이 참여해 7일 오후 5시 입학 환영식을 갖고 본격 학업에 돌입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단과대학 학장, 프로그램 참가자와 지도교수들이 참석해 이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중국 교수들은 앞으로 한국에 머물며 각 분야별로 박사학위 과정을 밟게 된다. 참가자 대표인 왕동평 교수(중국 소관학원)는 “이렇게 훌륭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해 준 전북대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과정 기간 동안 전북대를 중국에 더욱 알리고, 한-중 간 교류의 교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총장은 “중국 내 많은 교수님들이 박사과정에 진학함으로써 우수 유학생 유치와 양국 간의 연구협력 증진, 그리고 졸업 후 동문으로서 전북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양국이 더욱 돈독한 동반자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점수 더 높여야”

김승환 교육감 “70점은 일반고도 거뜰히 넘길 수 있어... 더 강화해야”

서울 대성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현재 60점에서 70점으로 높여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70점을 맞으면 자사고 유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2015년에 우리지역 자사고인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재 지정 평가가 있었는데,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고도 두 곳도 자사고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당시 해당 일반고 두 곳은 모두 70점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70점은 일반고도 거뜰히 넘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80점까지 상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평가항목, 평가의 적정성, 평가배점의 적정성, 학교기준 점수의 적정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함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교육감은 USB에 보관하거나 웹하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면서 대책 마련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2기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임원선출 · 운영계획 협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1일 ‘전북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연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보장과 지역 사회의 협치 강화를 위해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를 맞았다. 2기 위원회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공보담당관), 공개모집 위원 9명, 학계·교육계, 지역사회단체, 학부모단체, 장애인·다문화단체, 도의회 등 각계 인사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간 민관협력위원회는 전북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의제제출, 결정에 참여해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추진 해온 5개 분야의 의제 ‘학생 안전,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 민관협 거버넌스 교육활동, 전북형 학교협동조합, 학교자치 활성화’ 등에 관해 운영경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2년을 이끌어갈 임원진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한다. 의제별 위원회는 전라북도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부서,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협의해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체회의에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민관협력위원 3명, 소관부서팀장·담당장학사 등 3명, 관련민간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민관협력위원회의 의제 선정 계획을 살펴보면 전북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 및 현안사업을 내용으로 하며 민관협력위원회와 교육청 소관부서가 제안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도민들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공동체 참여방’(http://www.jbe.go.kr/main/main.jbe)을 통해 의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메르스 예방관리 안전 당부

전북도교육청은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예방관리에 안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

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확진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같은 항공기에 탔던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중이다. 도내에는 밀접접촉자는 없지만, 확진환자와 항공기를 함께 탄 일상접촉자가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